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 연구

정혜린* · 김익한**

1. 머리말
2.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역사 그리고 모델
3. 해외 사례에서 본 시사
4.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기능 분석
5. 미술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방안 모색
6. 맺음말

[국문초록]

세계화의 과정이 미술관의 활동에 반영되면서 미술관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맥락을 재현하는 장소로 재정의 되었다. 급속히 변하는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유기적인 존재로서의 미술관은 주체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의 속도

* 주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 졸업.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 연구원

**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2007; 「전자기록의 진본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기록학연구』, 14, 2006

와 방향·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대중은 미술작품이라는 물리적 대상의 관람을 통해 작품의 진본성, 아우라와 대면해 왔다. 그러나 새롭게 디지털 객체의 등장에 따라 관람의 주도권은 미술작품에서 대중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제 대중은 작품을 보기위해 미술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화면 앞으로 작품을 끌어오는 역발상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작품만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진입은 미술관에도 또 다른 방식의 공공성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미술관의 공공성이란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미술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공통의 목표이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미술사 전반에 걸쳐 생산되었지만 지금까지 작품의 아우라에 가려 소홀히 관리되었던 미술기록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기록의 가치가 고양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금 시점에서 미술기록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설정을 통하여 유형 및 특성을 도출하고, 미술아카이브의 조직과 조직의 수행 기능에 따른 기록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기록 관리 전반 체제의 기초가 ‘보존’보다 ‘접근’의 패러다임에 있음을 강조하여 디지털화된 미술기록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상하였다. 그 중에서 미술작품의 디지털 객체를 작품 실물의 제1의 재현물로서 인정하며,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원본의 개념으로 제안함으로써 이를 미술기록의 핵심기록으로 설정하였다. 물리적·지적 통제 하에 관리된 미술기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핵심기록인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재구성됨으로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은 기록자체의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고양하고 넓게는 미술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미술문화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미술기록, 미술 아카이브, 문화자원 통합 서비스, 모마·테이트 아카이브, 미술기록 디지털 객체

1. 머리말

기록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공공영역이나 기업에만 한정될 수 없다. 사회적 증거와 축적된 지식의 소통을 추구하는 기록정보관리는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도 실현될 필요가 있다. 얼마 전부터 문화 현상과 관련된 기록정보관리 혹은 아카이빙이 기록학 연구의 관심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¹⁾

미술 아카이브²⁾는 문화자원의 아카이빙이라는 과제와 관련

1) 윤혜숙, 「영상문화시대의 필름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 한국영상자료원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창규,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아카이브 활용방안 및 문제점 연구」, 아주대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참조

2) 미술 영역과 관련하여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미술 관련 아트 아카이브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실제로 아트 아카이브와 미술 아카이브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아트 아카이브는 미술을 포함한 예술 영역 전체를 다루는 아카이브를 포함하므로 미술 기록을 다루는 아카이브를 지칭할 때는 미술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미술 아카이브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다만 사례 소개에서 해당 기관 스스로가 아트 아카이브라

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해외의 사례 뿐만 아니라 국내의 동향에서도 비교적 풍부한 경험과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영역이 바로 미술 아카이브이기 때문이다.³⁾ 미술 아카이브를 전문적 기록정보관리의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자원 아카이빙에 대한 방법적 유형의 하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미술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방법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술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이후 예술경영이나 미술사 영역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석사학위 논문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비교적 알찬 성과들이 있었다. 김기현은 2000년에 발표한 논문,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사회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비영리조직-정부협력의 모델을 제시하여 미술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였다.⁴⁾ 2004년에는 미술사학 쪽에서 이경수의 “미술자료 전산화에 있어서의 표준화 : 북미지역 미술기관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미술기록의 관리 방법에 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 이미지 관련 표준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미술 아카이브의 객체 전반에

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아트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 3) 해외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미술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 뉴욕 현대미술관 아카이브(MoMA Archives), 테이트갤러리 아카이브(Tate Gallery Archives) 등 다수가 있으며, 국내의 경험으로도 국립현대미술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등이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 4) 김기현,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5) 이경수, 「미술 자료 전산화에 있어서의 표준화 : 북미지역 미술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대한 논의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이 분야 연구의 방향을 구체적인 관리 방법론 쪽으로 열어갔다는 연구사적 의미를 갖는다. 2006년에 이르러서 기록학 분야에서 최초가 되는 정명주의 논문,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외국의 미술 아카이브의 역사, 연혁 등을 살피고 그 조직 구성과 기능을 분석한 후 미술기록의 수집, 분류, 기술, 보존, 서비스 등의 과학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어 미술 아카이브와 관련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은 미술 아카이브의 설립 운영의 방법과 객체 관리의 기법들을 이해하게 해 주었으며, 특히 정명주의 연구는 기록학의 방법론적 틀 속에서 미술 아카이브 전반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김기현의 연구는 설립 운영론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술 아카이브의 현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정명주의 연구 역시 한국의 미술 아카이브의 현장을 분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델링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는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미지 데이터의 관리 표준에 초점을 맞춘 이경수의 논문은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각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인정되나 미술기록의 관리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한 위에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정리의 측면에 한 축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현황 분석에 한 축을 둬으로써 기록학적 이론과 현황분석의 양 축

면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해보려 한다. 이 두 축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때 비로소 한국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영역의 기록정보관리를 토대로 정립된 기록학 일반 이론을 교조적으로 미술 아카이브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술 아카이브의 특성과 관리될 객체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 전개가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2.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역사 그리고 모델

2.1 미술기록의 개념과 그 특성

미술 아카이브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리 객체가 되는 미술기록의 정의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그간 미술계에서는 미술기록과 유사한 용어로 자료, 사료, 기록자료, 정보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왔으며 용어가 포괄하는 범주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왔다. 예를 들면 미술기록의 정보화에 대해 선구적인 성과를 남긴 황동렬의 경우 미술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미술자료라 함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의 미술 작품 담당 큐레이터나 사서의 도큐멘테이션의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으로 미술품의 등록, 점검, 목록화 등 미술품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경험적 기술이 주가 되며 일반적으로는 원작품의 복제형태인 슬라이드나

사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⁶⁾

위와 같이 미술자료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에서는 미술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생성되는 핵심 기록들을 그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이 활동을 반영하며 그 활동의 맥락과 생성된 객체간의 관계구조를 중시하는데 반해, 자료는 관련 지식 정보의 총합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미술 아카이브가 황동렬이 정의한 미술자료만을 관리 객체로 설정하게 된다면 미술 행위의 핵심이 되는 작품 활동, 그리고 작품 완성 이후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되는 정보객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

미술 작품은 창작자의 내밀하고 고유한 경험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예술적 지향, 그리고 사상을 내포하기 마련이며, 앞선 시대의 예술적 성취를 폭넓게 계승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 작품을 만들어낸 시대정신이나 사상, 문화적 정체성과 조우한다.⁷⁾ 또한 미술관 등의 활동을 통해 미술 작품은 집합적인 예술적 실체로 새로이 조직되기도 하고 미술관 활동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정보와 결합하여 더욱더 풍부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는 창작자의 창작 행위, 미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예술적 맥락, 미술관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모두 시야에 넣음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증거와 지식의 전송체로서 역할 할 수 있게 된다. 미술 아카이브가 포괄하는 객체 모두를 미술기록이라 한

6) 황동렬, 「미술화상정보의 축적과 검색에 관한연구」, 『국회도서관보』, 234, 1994, p.45.

7) 김호신, 「국립예술아카이브(가칭)설립 및 운영방안」,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포럼』, 2007, p.45.

다면 이는 적어도 미술자료라고 칭해지는 협소한 대상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보다 포괄적인 객체임을 알 수 있다.

미술기록의 개념을 정의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지점은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성격 규정이다. “미술 작품이 아카이브에서 관리되어야 할 기록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김철효는 미술기록에는 미술 작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정보 등이 포함되지만 작품 그 자체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⁸⁾ 반면 김달진과 이호신은 미술 작품이야말로 미술 행위에서 생성된 구체적인 형상을 띤 실물이므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술기록이라 주장한다.⁹⁾

미술작품이 미술기록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미술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고려하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스콧(David W. Scott)은 미술 작품의 가치를 1차적 미적 가치(Aesthetic Value)와 더불어 2차적 기록적 가치(Documentary Value)와 조합적 가치(Association Value) 그리고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¹⁰⁾ 미술 작품을 기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주장들은 다른 모든 가치를 배제한 채 미적 가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반면, 스콧과 같이 작품의 다양한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미술 작품은 당연히 핵심적인 미술 기록이 될 수 밖에 없다.

-
- 8) 김철효, 「시각예술분야 자료관리 현황」,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포럼』, 2007, p.23
- 9) 김달진, 「국내 미술자료실 실태조사 -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 방안 연구」, 『2008 시각예술포럼 ‘art archives’자료집』, 2008, p.13
- 10) Scott, David W. 「Museum data bank research report; the yogi and the registras」, 『Library Trends』, 37(2), p.130. {황동렬, 「미술콘텐츠 디지털화를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발표논문집』, 6, 2005, p.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미술 작품이 상품으로써 유통되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작품이 아카이브가 수집 관리해야 하는 핵심적인 미술기록이라고 전제한다면 작품이 상품으로서 유통되는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논리로 발전해갈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은 공공성의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 마치 박물관이 상품으로 유통되기도 하는 박물을 공공성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수집 관리하듯이 미술 아카이브 역시 공공성의 기준에서 미술 작품을 미술기록으로 파악하여 수집 관리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고려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술기록은 창작자 및 창작자 집단이 미술 창작행위를 하는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것 모두와, 미술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미술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것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술기록은 창작자와 창작 집단, 그리고 미술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미술 창작행위 및 기타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작품을 포함하는 모든 객체로 정의된다.

미술기록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그 유형과 세부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1> 미술기록의 유형과 세부 종류

유형	세부 종류
생산 맥락과 관련하여 창작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창작자나 창작 집단이 사용한 도구를 비롯하여 드로잉, 스케치 등 그 과정 기록 및 작품 그 자체, 그리고 창작자 등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
미술 관련조직의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작품 등이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대여 혹은 판매되었을 때 생산되는 각종 과정 기록과 활동 기록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작품, 창작자, 창작집단에 대한 연구 및 비평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우선 미술기록의 유형은 그 생산 맥락과 관련하여 창작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과 미술 관련조직의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기록, 그리고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으로 대별된다.¹¹⁾ 첫 번째 유형은 창작자나 창작 집단이 사용한 도구를 비롯하여 드로잉, 스케치 등 그 과정 기록 및 작품 그 자체, 그리고 창작자 등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 모두를 포함한다. 두 번째 유형은 작품 등이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대여 혹은 판매되었을 때 생산되는 각종 과정 기록과 활동 기록을 포함하며, 세 번째 유형은 작품, 창작자, 창작집단에 대한 연구 및 비평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 모두를 포함한다.

미술기록 중 미술 작품을 포함한 대부분은 기록 일반과 마찬가지로 유일본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다만 미술 관련 조직의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 중 팸플릿이나 포스터 등은 제작 목적에 따라 다수의 동일객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며, 연구나 비평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은 일반 정보로서의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미술기록을 관리할 때는 이러한 미술기록 객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록 일반의 관리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미술기록의 또 하나의 특성은 생산목적이 주관적이고 그 형태와 매체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미술기록을 관리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분류나 기술 방법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그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적용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경우는 그 기록에 대한 변경 내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반입되

11) 작품이나 창작자에 대한 연구 활동은 미술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기타 행위의 하나로 해석 가능하다.

거나 수집된 작품이 이전, 전시, 대여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관한 이력정보가 계속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미술기록은 해당 작품의 연관 이력정보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관리되어야 한다.

2.2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역사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작품을 포함하는 미술기록을 수집, 평가선별, 정리, 보존, 서비스 하는 전문기관을 지칭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술문화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미술 아카이브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개인 미술사가들이 미술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설립된 미술 아카이브에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연구기록이나 창작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미술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미술사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술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각국의 공공 미술관들이 미술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미술 아카이브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미술도서관, 미술관, 미술대학 내에 공공의 미술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제 미술 아카이비스트(특히 보존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이브가 국제박물관협회(ICOM)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미술아카이브연방협회(The Bundesverband der Bildarchiv)’는 독일의 주요도시인 드레스덴, 쾰른, 함부르크 등지에 산재한 미술아카이브들을 대상으로 협력·교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42년 필라델피아 미술관 관화 큐레이터인 칼 자이그로셔(Carl Zigrossor)에 의해 미국 미술 아카이브가 제안·설립되었고, 스미소니언 박물관과의 협력 아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¹²⁾ 이처럼 미술 아카이브는 근대 이후 미술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목표와 맞물리며 발전해 왔다.

일반 아카이브가 ‘기관설치형’과 ‘독자설립형’의 두 유형으로 대별된다면 미술 아카이브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양자를 통합한 ‘통합형’ 아카이브로 발전해갔다. 이러한 통합형 미술 아카이브들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에게 소장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록과 이용자와의 물리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기존의 아카이브와 비교할 때,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위 ‘장벽 없는 아카이브(archives without walls)’ 또는 ‘경계 없는 아카이브(archives without boundaries)’¹³⁾를 지향하고 있다.¹⁴⁾ 미술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동이 가상 미술관과 상호 연계되어 미술관 기능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데 있다. 많은 미술관들이 미술작품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에 기인한 차별성을 가지고 종래의 미술관들과는 다른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나 가상 미술관은 미술관의 무게 중심을 작품에서 정보 내지

12) 김기현,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p. 31-35.

13) 서지원, 「예술과 미술관」, 『대학예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pp. 368-370.

14) Eric Ketelaar, 「Being Digital in People's Archives」, 『Archives and Manuscripts』 31(2), pp. 8-21; {김주관, 「문화자료와 디지털아카이브구축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2006, p452}

는 작품과 일체화된 정보체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가치만을 중시했던 미술관의 편애가 작품을 둘러싼 기록적·정보적 가치까지 아우르게 됨을 의미한다. 미술관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가상 미술관을 통하여, 작품을 보존하는 수동적 장소가 아니라 미술관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용하여 대중이 미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장소로 탈바꿈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맥락·배경 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체계와 함께 물리적인 작품 중심에서 디지털 객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이 부각된다. 아카이브가 기록학적 관리방법을 통해 미술기록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숨겨져 있는 내러티브를 이끌어냄으로써, 미술관은 공간적 한계 안에서 사실 정보를 나열하는데 그쳐야 했던 과거의 물리적 미술관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3. 해외 사례에서 본 시사

미술기록,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특성과 더불어 해외 우수 미술 아카이브의 사례 분석은 미술 아카이브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구안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 아카이브(Museum of Modern Art Archives)와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Tate Gallery Archives)는 역사와 규모, 그리고 운영의 내실 측면에서 사례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세계수준의 아카이브이다.

3.1 뉴욕 현대 미술관 아카이브

뉴욕 현대 미술관 아카이브(이하 모마아카이브로 약칭함)는 1989년 미술관 법률 고문의 지원 아래 미술관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8년에는 뉴욕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관련 컬렉션 중 핵심적 의미를 지니는 기록들이 모마 아카이브로 이관되기도 하였다. 모마 아카이브는 미국 근현대 미술에 관한 기록 및 정보자료의 집산지이자 연구센터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모마 아카이브 관리 객체

모마 아카이브는 미술관 내에 소속되어 설치되었으므로 조직 유형 상 ‘기관설치형 아카이브’에 포함되지만, 관리하는 객체의 유형은 기관기록(Institutional Records)과 매뉴스크립트(Manuscript Collection)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모마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 모마 아카이브 소장 기록 유형

모마 아카이브 소장 기록	기관기록 (Institutional Records)	아카이브 (MoMA Archives)
		개인/연구 기록 (Personal and Professional Papers)
		20C 미술관 관련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Twentieth-Century Manuscript Collection)
		행정기록 (MoMA Records)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Manuscript Collection)	

기관기록은 모(母)기관인 미술관의 각 부서에서 생산된 후 아카이브로 이관된 기록이다. 그 중 ‘아카이브’는 역사적·사회

적·정치적 가치, 학술적 잠재성, 법적 의의를 지녔다고 판단되어 영구히 보존하도록 선별된 기록으로, 미술관 내 부서활동이나 및 각종 프로그램에서 생산되었으나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비현용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및 연구기록’이다.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공적인 업무활동에 따라 생산한 기록과 개별적인 학술활동,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한 모든 기록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인 ‘20C 미술관 관련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20세기 미술사에 있어서 비중이 높은 단체나 개인에 의해 생산되어 도서관이 관리해 오다가 아카이브로 이관된 기록이다. 마지막 유형은 ‘모마 행정기록’이다. 미술관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미술관 직원이 기록관리 프로그램 가이드에 따라 생산하거나 입수한 기록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관리되며 전량이 아카이브에 이관된다.

모마 아카이브는 기관의 정책과 활동의 보다 충실한 도큐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관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관기록이 이관, 관리, 활용을 거쳐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고안되어 있다.

모마 아카이브는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미술사에서 중요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생성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독자의 수집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선정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현대 미술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으로서, 미술관

소장 작품과 미술관의 사명과 관련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2.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도큐멘테이션한다는 미술관의 사명을 반영하는 기록과 근현대 미술과 문화의 존손력, 복잡성 등에 대한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3. 당 미술관이 정의하는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비평가, 학자, 딜러, 예술사가, 예술 경영가, 미술관련 조직이나 갤러리의 기록들이 이에 포함된다.
4. 이 컬렉션은 모마 아카이브의 중요한 열람자인 큐레이터와 직원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각 예술에 대한 연구를 위한 학술적인 목적으로 관리된다.....(하략)¹⁵⁾

그 외에 이 선정기준에는 기록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 매체, 언어, 저작권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매뉴스크립트 수집의 대부분을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네트워크 관리에 역점으로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2) 정리 및 기술방법

모마 아카이브는 2006년에 재개관 한 이후부터 소장 컬렉션을 기관기록 / 매뉴스크립트 / 미정리 기록 / 접근 제한 기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장 기록의 기술계층 구분을 위하여 기록관리 기술표준의 하나인 DACS를 준용하고 있으며, 기록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최하위의 Item부터 최상위의 Repository까지 6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마 아카이브가

15) MoMA Archives, 「Criteria for New Acquisitions」,
(http://www.moma.org/learn/resources/archives/archives_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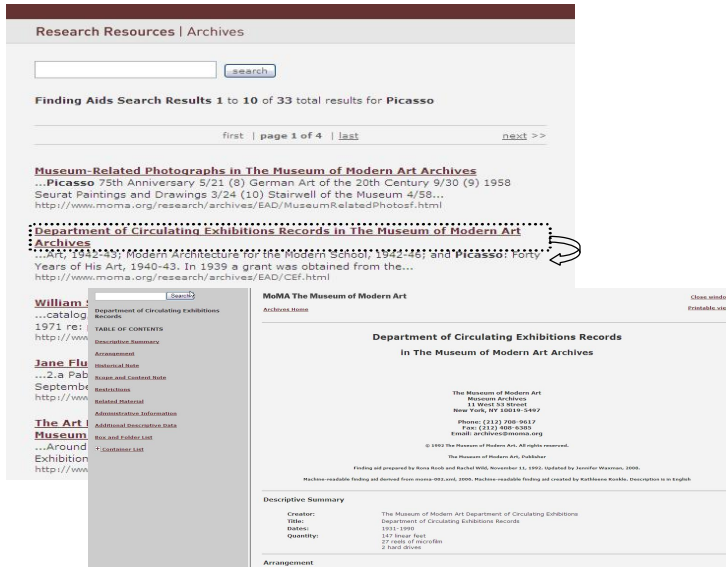
채택하고 있는 기술요소는 아래 그림과 같다.

<표 3> 모마 아카이브 기술요소

기술 영역	모마 필수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번호, 표제, 일자, 레벨, 수량, 위치
배경영역	생산자, 이력, 출처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주기, 정리
열람과 이용영역	접근제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언어, 기술도구
연관자료 영역	사본 정보, 관련 기록 정보
주기영역	출판주기나 인용, 주기사항
기술통제영역	작성 아키비스트, 작성 일자
보존영역	보존

모마아카이브는 ‘참조번호’, ‘표제’, ‘일자’, ‘레벨’, ‘수량’, ‘위치’를 통해 기록을 식별한다. 또한 열람과 이용영역의 ‘접근제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정보’, ‘언어’를 통하여 기록에 대한 물리적 질서와 기록 외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사본의 존재유무’와 ‘관련 기록 정보’를 이용하면 컬렉션 간 유기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모마의 소장 기록은 모마아카이브 웹사이트의 ‘Holdings’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 모마 아카이브 컬렉션 검색 결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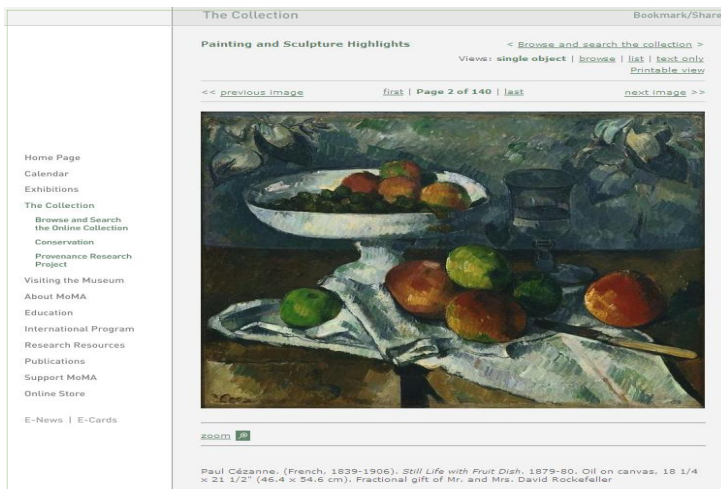
<그림 1>은 검색어 'Picasso'를 입력한 결과이다. 'Picasso'에 관련된 33개의 컬렉션이 검색되었는데, 컬렉션 단위의 기술내용과 하위 계층인 시리즈, 서브시리즈, 폴더, 아이템에 대한 목록정보와 정리 상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온라인 서비스

모마는 아카이브, 도서관, 학술센터가 연합하여 다양한 미술 정보를 관리·서비스하고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Holdings', 'Highlight', 'Exhibition History List' 메뉴로 소장 기록, 핵심 컬렉션, 역대 전시회 정보를 제공한다. 'Holdings'에서는 소장 중인 기록 컬렉션에 대한 목록과 컬렉션 단위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록 중에서 전시회나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

록을 콘텐츠로 가공하여 ‘Highlight’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전시회 관련 기록, 평론가·직원 및 연구자의 활동 관련 기록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 도서관, 학술센터에 산재된 기록정보는 ‘DADABASE’라는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통합 검색된다. 모마 미술관은 소장 중인 4,076명의 작가의 18,382건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의 ‘The Collection’ 메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DADABASE’는 여기에서 작품에 대한 연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작품과 기록간의 내러티브를 드러내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 ‘The Collection’ 메뉴를 통한 작품 정보 제공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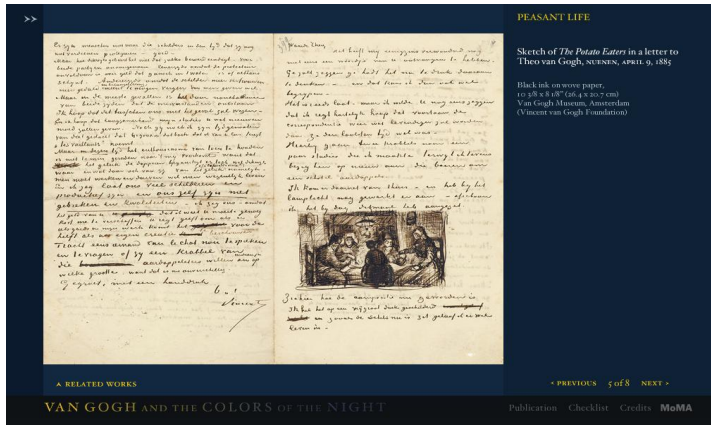
<그림 2>은 ‘Paul Cézanne’의 정물화가 출력된 화면이다. 화면 하단에는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소재, 크기, 소장경로 및 기증자 명’ 등의 기술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작품이 분류되어 있

는 ‘장르, 장르 내 분류, 생산일자’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DADABASE’로의 링크를 통해 아카이브, 도서관, 학술 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이나 도서, 연구보고서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작품 정보와 아카이브 정보 링크 화면

온라인 전시에서는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과 더불어 오프라인 전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작품관련 기록, 작가의 스케랩북, 드로잉 등을 미술사적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단순한 작품 전시에서 나아가 작품 관련 기록에 미술사적 해석을 부가한 각종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은 미술작품과 관련 기록의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



<그림 4> 'Van Gogh and the Colors of the Night' 온라인 전시회16) 화면

<그림 4>와 같이 온라인 전시에서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전시되는 기록의 디지털 원본을 중심으로 작가 정보, 연대기 별 작품이미지와 관련된 초기 습작들 및 작품설명, 관련 도서와 기록정보가 제공된다. 디지털 원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뮤지엄(Van Gogh Museum)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술관 간 디지털 객체 교류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3.2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1) 테이트 아카이브의 관리객체

테이트 갤러리는 1894년 헨리 테이트(Henry Tate)가 자신의 소

16) MoMA는 “Van Gogh and the Colors of the Night”란 주제로 2008년 9월 21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시회를 진행했다.

장품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British Art)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어 현재 6만 5천 여 점의 작품을 소장한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성장하였다. 테이트 갤러리의 아카이브는 브리튼, 모던, 리버풀, 아이브에 소장 중인 작품에 대한 기록들을 통합 관리한다. 소장기록은 1900년 이후에 생산된 영국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British Art Archive Collection)과 기관기록(Gallery Records)으로 구성된다.

영국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은 약 700여개의 다양한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초기 영국미술과 20세기 외국 아티스트와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룬다. 아카이브 컬렉션 이외에도 사진, 포스터, 음성·영상 기록 컬렉션이 관리되고 있다.¹⁷⁾ 사진 컬렉션은 테이트의 역사를 주제로 하여 약 10만 여장이 소장되어 있으며 열람실에서 목록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포스터 컬렉션은 도서관과 홍보팀에서 수집 관리해왔던 포스터를 이관 받아 관리중이다. 미술관에서 진행된 강연이나 컨퍼런스에 대한 모든 음성 및 영상기록과 더불어, 화가의 구술사 기록 역시 다량 보유하고 있다.

기관기록은 영국 공공기록법(PRA)을 준수하여 관리되고, 1897년 이후의 미술관의 핵심 활동과 관련된 기록, 전시회 관련 파일, 포스터, 사진, 평의회 의사록, 건축 관련 파일, 원본 증서, 컬렉션 중 기관의 활동을 기록한 파일(1897년 이후 생산 기록)등으로 구성된다. 테이트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음성·영상 기록 컬렉션은 'Library Catalogue'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표 4>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소장 기록 유형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소장기록	영국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 (British Art Archive Collection)	개인, 기관 기증 기록 (Archives Collection)
		사진 (Photographs)
		포스터 (Posters, TAP)
		음성 및 영상 기록 (Audio-Visual Material, TAV)
	기관기록 (Gallery Records)	테이트 자체 역사 기록 (Gallery Records)

2) 아카이브의 정리 및 기술방법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는 소장 기록을 주제와 매체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각 컬렉션은 관리와 검색의 편의를 위해 TGA, TG, TAM, TAP 등의 코드¹⁸⁾가 부여되어 관리된다. 기록 기술은 ISAD(G)를 기본으로 한 기술요소를 채택하되 테이트 갤러리 미술기록의 구조에 맞게 하부 요소로 싱글아이템 (Single Item)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풍(Fonds) - 하위풍(Sub Fonds) - 시리즈(Series) - 하위시리즈(Sub Series) - 파일(File) - Item (아이템) - Single Item(싱글 아이템)의 계층구조로 컬렉션을 구분하고, 6개영역의 20개의 요소를 사용하여 기술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18) TGA(Tate Archives), TG(Tate Gallery Official Records), TAM(Tate Archive Microfiche), TAP(Tate Archive Posters Collection)

<표 5>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기록 기술요소

기술영역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번호, 표제, 일자, 계층, 수량, 매체
배경영역	컬렉션 명, 관리 이력, 보관 이력, 수집 출처
내용과 구조영역	기술, 정리
열람과 이용영역	접근 권한, 저작권, 접근 조건, 검색 도구, 언어
연관자료 영역	사본의 위치, 관련 기록 정보
주기영역	주기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식별요소는 ‘참조코드’, ‘표제’, ‘생산일자’, ‘계층’, ‘수량’,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경영역은 ‘컬렉션 명’, ‘관리 이력’, ‘보관 이력’, ‘수집 출처’로, 내용과 구조영역은 ‘기술’과 ‘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열람과 이용영역은 ‘접근권한’, ‘저작권’, ‘접근 조건’, ‘검색도구’, ‘언어’로 구성되며, 연관 자료 영역의 관련기록정보에서는 ‘Record Context’라는 항목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단위의 상위 계층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¹⁹⁾ 이상의 기술요소는 각 기록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이 채택되어 실질적인 기술에 활용된다.

3) 이용자 온라인 서비스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웹사이트의 ‘Research’ 메뉴에서는 테이트 소재 아카이브, 도서관의 다양한 소장 기록·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메

19) 정명주,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p. 45-46.

뉴는 'Archive Catalogue'와 'Archive Online'으로 구분된다. 'Archive Catalogue'는 영국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과 기관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²⁰⁾ 특히 표준화된 기록관리 방식을 준용하여 기록간의 계층성과 내적 유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5>는 검색어 'Picasso'를 입력하고 시리즈 계층의 기록을 검색한 화면 결과이다.

RefNo	CollectionName	Title	Date	AccessConditions
1	Tate Records: Tate Exhibitions	The Moltau Collection from Cezanne to Picasso (3 Oct-2 Nov 1958)	2 May 1958-16 Mar 1959	
2	Tate Records: Tate Exhibitions	Pablo Picasso: A retrospective exhibition (6 Jul-18 Sep 1960)	21 Mar 1958-26 Oct 1960	
3	Tate Records: Tate Exhibitions	Pablo Picasso: Sculpture, ceramics and graphic works (10 Jun-13 Aug 1967)	3 Nov 1966-8 Jul 1986	
4	Tate Records: Tate Exhibitions	Picasso to Lichtenstein - Masterpieces of 20th Century Art (2 Oct-24 Nov 1974)	19 Feb 1971-9 Aug 1977	
5	TGA 20043/1	Joule, Barry	Source Material	1950s-1990s

<그림 5> 'Archive Catalogue' 기록 검색 화면

검색결과 'Picasso'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이 검색된다. TG와 TGA, 즉 기관기록과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간략정보가 제공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아카이브 컬렉션에 해당하는 'TGA20043/1'의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그림 6>과 같다.

20) 현재는 컬렉션 단위로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추후 하위계층기술정보까지 제공할 계획 중에 있다.

Collection Name	Joule, Barry
Level	Series
Reference Number	TGA 20043/1
Title	Source Material
Access Status	OPEN
Extent	Twelve ring-bound volumes
Date	1950s-1990s
Description	727 pages torn out of books and magazines, many with evidence of mark-making.
Arrangement	Prior to acquisition by the Tate Archive these items which were not in any order but were arranged thematically and numbered according to Barry Joule and the Barbican Art Gallery in London for the exhibition, 'Bacon's eye: works on paper attributed to Francis Bacon from the 1950s to 1990s', 2 Feb.-18 Apr 2001. This arrangement has been kept, with sub-series relating to the following alpha TGA 20043/1/1 Animals (AN) TGA 20043/1/2 Art (A) TGA 20043/1/3 Art, Egyptian (AE) TGA 20043/1/4 Art, Picasso (AP)

RefNo	TGA 20043
Title	Source material (many over-painted or scratched), the 'X-Album', books, catalogues, periodicals, other publications and photographs (many taken by Joule) of Francis Bacon and friends primarily from the studio of Francis Bacon at 11 Reece Mews, London.
Date	1950s-1990s

RefNo	TGA 20043/1
Title	Source Material
Date	1950s-1990s

RefNo	TGA 20043/1/1
Title	Source Material relating to Animals
Date	1950s-199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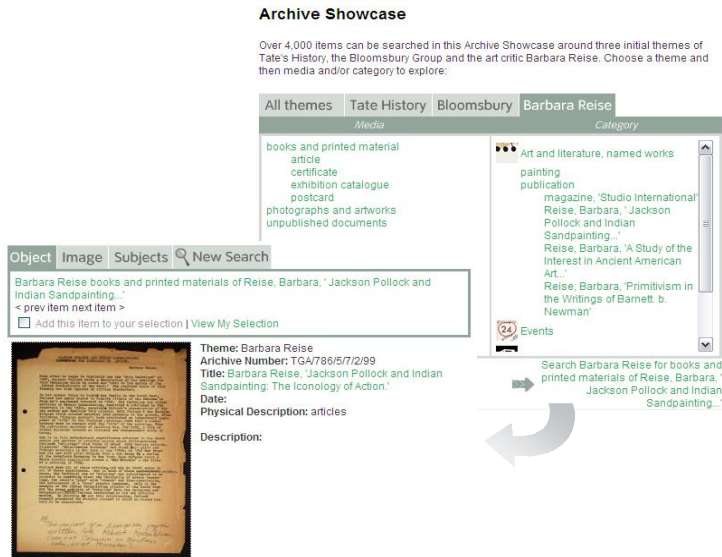
Item	1	RefNo	TGA 20043/1/1/1
		Title	Monkey
		Date	nd

Item	2	RefNo	TGA 20043/1/1/2
		Title	Camargue horses
		Date	nd

<그림 6>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브 기록 계층 구조 구현 화면

‘Archive Online’은 소장 기록의 콘텐츠로서의 활용도를 최대한 이끌어낸 적극적인 시도로서 ‘Archive Showcase and Journey’와 ‘Archive Micro-Sites’로 구분된다. ‘Archive Showcase’에서는 테이트 아카이브의 핵심 컬렉션²¹⁾과 관련된 약 4,000건 이상의 기록 원문과 연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7>은 ‘Archives Showcase’ 중 바바라 레이즈 컬렉션(Babara Reise Collection)에 대한 화면으로, ‘Jackson Pollock and Indian Sandpainting: The Iconology of Action’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21) Tate's History Collection, Bloomsbury Group Collection, Babara Reise Collection



<그림 7> 'Archives Showcase' 화면

검색결과 해당 기록에 대한 '테마명, 참조코드, 표제, 일자, 유형,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를 확대하여 세부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며 원하는 이미지를 개인별 계정에 담아 연구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Archive Journey'는 'Showcase'에서 선보인 세 가지 테마 컬렉션 별로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Archive Journeys'에서는 해당 컬렉션과 관련한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기록 원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원문이미지는 'Archives Showcase'에 링크되어 세부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가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Archive Micro-Site'가 있다. 여기에서는 테이트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가들의 개인문서

나 단체/조직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테이트 갤러리는 소장 아카이브 컬렉션뿐만 아니라 소장 작품에 대한 디지털 객체를 제작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지 온라인 전시를 통한 교육·홍보의 효과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효과까지 배가시킨 것이다. 상업적인 활용은 ‘Licensing Services’와 ‘Print Services’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테이트 소장 작품의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와 참조, 연구 및 전시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디지털 이미지를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8>은 ‘Print Service’의 ‘Art on Demand’ 웹페이지 화면이다.



<그림 8> ‘Art on Demand’를 통한 디지털 원본 구매 화면

온라인을 통해서 미술작품의 원본을 판매하는 일은 저작권 (Copyright)과 같은 민감한 사항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된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테이트 갤러리 아카이

브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디지털 이미지의 복제와 공급에 관한 이용 조건 및 지불 조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²²⁾ 이 정책에는 매체, 이미지, 라이선스, 클라이언트, 복제에 대한 용어 정의, 구매한 이미지의 전송 및 파기 방법, 저작권, 라이선스, 요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3 사례에서 본 시사

모마와 테이트는 미술관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가치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성찰을 해왔다. 이에 따라 미술관의 모든 가치해석과 창조 작업 및 기타 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기록정보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이를 심미적·지적·역사적 자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모마와 테이트 아카이브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디지털 원본과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미술관의 시간성·공간성을 뛰어넘는 능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먼저 수집의 측면에서 각 미술관 아카이브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록의 관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모(母)기관의 역사를 도큐멘테이션하기 위하여 연구·업무활동을 펼친 직원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그 중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기록은 지금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핵심 컬렉션으로서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의 측면에서는 기록학적 방법론을 준용하여 기록의 계층적·유기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들

22) DIGITAL PICTURE LIBRARY - GENERAL TERMS AND CONDITION FOR ANALOG / DIGITAL IMAGE REPRODUCTION AND SUPPLY

은 추후 콘텐츠로 가공되어 다양한 가치를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작품과 관련 기록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미술기록 컬렉션으로 역사를 재현해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의 공공성을 적절히 구현하고 있다. 또한 미술작품의 디지털 객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디지털 객체는 미적·기록적 가치의 측면에서 원 자료인 미술작품의 등가물이자 대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비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비단 디지털 객체가 갖는 상업적 가치 때문만은 아니다. 디지털 객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격에 의해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실현됨으로써 미술관들은 ‘작품’만을 일방적 편애하는 관점에서 점차 벗어나게 될 것이다.

4.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기능 분석

4.1 관리주체 및 관리객체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행정 과정 전반에 걸쳐 생산되는 기관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기관기록은 한 명의 기록관리 담당자에 의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다.

<표 6> 국립현대미술관 2007년도 보유기록 현황

구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총계	957	51	34	3	701	144	24	0
문서(권) 대장포함	957	51	33	3	701	144	24	0
카드(권)	-	-	1	-	-	-	-	-
카드(매)	-	-	-	-	-	-	-	-
도면(권)	-	-	-	-	-	-	-	-
도면(매)	-	-	-	-	-	-	-	-

<표 6>은 국립현대미술관이 2008년 생산현황보고를 위해 작성한 ‘2007년도 보유기록 현황’이다.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행정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수준이다. 회의록이나 시청각기록, 광디스크수록 기록 등에 대한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미술관 내의 업무활동이나 작품에 관련되어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기록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매뉴스크립트, 즉 미술기록은 도서자료실, 작품보존관리실, 학예연구실에 분산 관리 중이다. 도서자료실은 국내외의 근현대 미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관내 직원 및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미술전문 자료실이다. 도서자료실은 초기에는 국내 근현대미술 및 미술관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기본 기능만을 수행하다가 1986년 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 개관한 이후부터 그 기능을 확대하였고 1995년부터 기초자료의 정보화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미술정보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²³⁾ 또한 2005년부터는 ‘전시 관련 비도서 자

23) 국립현대미술관(편), 『미술관과 자료』, 1999, p.66

료 서지정보 DB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1만 여 건의 데이터를 구축해왔으며²⁴⁾, 현재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자료실의 비도서 자료 소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자료실 소장 비도서자료 현황²⁵⁾

종류	수량	내용	DB구축 현황
미술인자료	12,394명 (당관작품소장작가 3,003명, 작품미소장작가 9,391명)	국내외 미술인	미술분야 인명데이터베이스가 전량 구축되어 있음
전시팸플릿	30,965종 35,117권	국내외 전시 팸플릿, 각 2부 씩 소장	서지데이터가 전량 DB구축되어 있음
미술 기사철	838권	일간지 게재 미술관련 기사철	-
외국 미술관	70개 파일	해외 미술관 발행자료 (20개국 70개 미술관)	-
슬라이드	약 24,000매	미술관 기획전시 슬라이드	-
비디오테이프	504종 566개	미술 관련 비디오	-
CD	381종 434개	미술 관련 CD	-
DVD	223종 252개	미술 관련 DVD	-
포스터	313종	미술관 기획전시 포스터	-
기획전 도록 및 기타 출판물	432종	미술관 기획전시 도록 및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자료실운영규정’에서는 ‘자료’를 미술계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팸플릿, 포스터, 미술관련 기사 등의 인쇄자료와 사진,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등의 시

2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연보」, 2007, p.73

2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연보」, 2007, p.74

청각자료, CD-ROM, DVD, 온라인 자료 등의 전자매체자료, 그리고 작품과 관련된 작가자료(이하 ‘미술인자료’) 등의 비도서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관 내규에 비도서자료의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일정 기능을 도서자료실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자료실은 1980년 미술관 개관 이후부터 미술계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을 제외한 모든 자료인 비도서 자료를 축적하여 왔다. ‘미술인 자료’는 학예연구실의 미술 인명 및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컬렉션을 말한다. 미술자료실은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들의 작가와 기타 미술관장이 특별히 선정한 작가, 그리고 미술사가 및 미술이론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등록 관리한다.²⁶⁾ ‘전시팸플릿’은 학예연구실의 또 다른 업무인 당해 연도 전시사업의 계획과 그 실행에 따라 생산된 기록의 하나이며, 그 외에도 국내 공·사립미술관의 전시팸플릿도 꾸준히 수집하여 관리 중이다. 또한 1986년 이래 개최된 기획전마다 전시작품을 촬영하여 슬라이드 자료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자료실 내에서 참고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비도서자료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록은 작품보존관리실에서 ‘자료’라고 분류된 기록들이다. 작품보존관리실은 소장 작품 수집의 종합적인 계획, 시행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장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자료 소장 현황은 ‘소장 작품 현황’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26) 국립현대미술관자료실운영규정 제15조, ‘미술인자료 작성’, 예규 제78호

<표 8>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소장 현황 27)

구분	한국화	회화 관화	드로잉	조각	뉴미 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기타	계
구입	376	1,079	549	360	40	190	449	6	7	1	-	3,057
기증	174	1,131	665	289	21	120	227	309	-	4	-	2,940
관리 전환	94	62	1	5	1	3	1	35	-	1	-	203
계	644	2,272	1,215	654	62	313	677	350	7	6	-	6,200
기탁 작품	3	147	-	3	-	-	-	3	-	-	-	156
자료	97	1,224	267	267	7	3	32	1	263	1	126	2,021
계	100	1,371	267	3	7	3	32	4	263	1	126	2,177
총계	744	3,643	1,483	656	69	316	709	354	270	7	126	8,377

소장 작품은 수집 경로에 따라 ‘구입, 기증, 관리전환²⁸⁾, 기탁, 자료’로 구분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란 소장 작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으나 미술사적 의의, 작가의 위상, 미술관에서 차지할 역할과 비중, 시대성 등을 고려할 때 작품으로 등재될 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기타 자료들을 말한다. 미술작품의 배경·맥락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닌 기록들도 ‘자료’의 ‘기타’ 항목에 포함된다. ‘자료’는 추후 연구 과정 중에 ‘자료작품평가’를 통해 작품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자료’에 대한 ‘자료작품평가’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콘텐츠 활용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 밖에 작품보존관리실에서 관리 중인 기록에는 ‘작품 슬라이드’가 있다. 소장 작품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작되었으며 미술관 간 대여나 도록제작 시 이용된다.

2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연보」, 2007, p.32

28) 전시를 목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해주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되는 작품

이렇게 작품의 재현을 목적으로 생산된 슬라이드 필름은 최적의 환경 하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고화질로 제작된 디지털 객체의 가치를 살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2 관리방법

1) 수집

행정기록 수집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정한 기록관 규정에 따라 각 부서 별로 기록관리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다. 반면 비도서자료는 특정한 이관 절차 없이 주로 학예연구실에서 연구의 과정 중에 획득된 것 또는 학예연구사의 검토를 거친 것 중 일부가 자료실로 이관되고 있으며, 작가의 기증을 통해 입수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국·공·사립 미술관과의 네트워크에 의해 해당 미술관의 전시팸플릿이나 포스터 등의 비도서자료도 꾸준히 입수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록 수집 정책이나 전략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작품관리보존실의 자료는 미술 작품의 수집방식과 동일하게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²⁹⁾ 수집 후에는 ‘보존작품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작품과 별도로 관리되고 보존된다. 작품보존관리실의 또 다른 관리대상인 슬라이드 필름은 작품의 입수 시점에서 제작되어 원본 미술작품과 같은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된다. 학예연구실에서는 현대미술분

29) 미술관에 입수되는 모든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수집 여부가 결정된다. 수집대상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추천작품과 수집작품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하며, 작품 선정 과정에서 수집작품제안권자의 결정에 따라 작품 / 자료로 구분되어 선정된다.

야 기초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미술관 소장 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문헌자료, 유족이나 작가의 녹취자료, 그리고 기타 기증 자료를 수집 있다. 이렇게 수집된 미술기록들은 지적·물리적인 정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집 출처별로 보관되어 있다.

2) 정리 및 기술

비도서 자료는 그 형태와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도서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유형별로 주제, 등록순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류방법은 <표 9>와 같다.

<표 9>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자료실 비도서자료 분류방식

유형	분류 방법 (1차/2차분류)		
미술인자료	작품분류별 / 개인별 가나다 순		
전시샘플릿	국내	개인전	등록 작가 / 미등록 작가별
		단체전	등록 단체 / 미등록 단체별
		기획전	주제별 / 날짜 순
	국외	개인전	작가명 알파벳 순
		단체전	전시시작 날짜 순
미술 기사철	주제별 / 날짜 순		
국외 미술관 자료	미술관 별 / 파일별 가나다 순		
슬라이드	작품분류별 가나다순		
비디오테이프 / CD / DVD	가나다 순		
포스터	미술관 별 / 가나다 순		
기획전 도록 및 기타 출판물	전시주제별 / 전시시작 날짜 순		

‘국립현대미술관자료실운영규정’에 따르면 미술인자료의 분류는 소장 작품 분류기준에 준하되 미술이론가 등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³⁰⁾ 작품 분류별로 1차 분류가, 개인별 가나다순으로 2차 분류가 시행된다.

작품보존관리실에서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은 약 2천여 점으로, ‘보존작품관리대장’에 별도로 기재, 관리된다. <표 10>은 ‘보존작품관리대장’의 서식이다.

<표 10> 국립현대미술관 보존작품관리대장 서식

보존작품관리대장											
번호	작가명	명제	제작 년도	규격	취득 일자	가격	비고 ³¹⁾	결재			
								담당	계장	실장	국장

‘보존작품관리대장’에는 ‘번호, 작가명, 명제, 제작년도, 규격, 취득일자, 가격, 비고, 결재’에 대한 기술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작품보존관리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80% 이상이 미술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작품에 중점을 둔 기술항목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미술관 소장 기록의 관리에 그 특성에 맞는 분류기준과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기록의 맥락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체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 서비스

국립현대미술관도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장 작품과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 소장 기록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관리 중이기 때문에 보유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30) 국립현대미술관자료실운영규정 제16조, ‘미술인자료 분류’, 예규 제78호
 31) ‘비고’란에는 한국화, 드로잉, 낙관, 다이어리 등 해당 자료의 종류가 기재된다.

도서자료실에서 관리 중인 도서 및 비도서 자료는 2005년도 부터 DB로 구축되어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미술정보’ 메뉴의 ‘작가검색’, ‘비도서검색’, ‘도서검색’을 이용하여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검색’에서는 기 구축되어있는 미술인 데이터베이스 중 미술관 소장 작품의 작가에 한해 관련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비도서검색’에서는 전시팸플릿의 서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전시 팸플릿의 소장유무 확인만이 가능하다. 웹사이트의 상의 ‘작품검색’과 ‘전시회 검색’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작품보존관리팀의 작품관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9>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검색 화면

‘작품상세정보’에서는 작품의 관리, 활용에 필요한 몇 가지 세부 정보가 제공되고, ‘작가상세정보’로 링크가 되어있다. 웹사이트 상의 ‘전시회검색’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회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학예연구실의 전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있다. <그림 10>은 전시회 검색 화면이다.

○ 전시회 검색 미술정보

Result : 1/2 Page Total 16 Data Found

관리번호	전시회명	전시회기간
2003-08-1	위대한 회화의 시대:렘브란트와 17세기 네 ..	2003.08.15-2003.11.09
2002-04-1	한국근대회화 100년전(1900-1990)	2002.04.17-2002.06.30
	전시회상세정보	2001.12.18-2002.01.15
	전시회상세정보	2001.03.15-2001.05.06

국립현대미술관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전시회상세정보 Exhibition Detail

위대한 회화의 시대:렘브란트와 17세기 네덜란드회화전

1. 기 간 : 2003.08.15~2003.11.09
2. 장 소 : 덕수궁미술관1,2전시실
3. 출품 작가 : 렘브란트 외 43명
4. 작 품 수 : 50점(마우리츠하위스 왕립미술관 소장품)
5. 주최 및 후원 : 국립현대미술관, 동아일보(주)로렌스 제프리스

<그림 10>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검색 화면

위 그림은 전시회 명에 키워드 ‘회화’를 입력하여 출력된 목록과 전시회 상세정보화면이다. ‘전시회상세정보’에서는 간략한 전시회정보와 미술사적 해설, 작품도록정보가 제공된다. ‘작품도록정보’는 도서관의 비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작품 도록의 원문이 제공되나 그 수가 적은 편이다.

4.3 문제점 종합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순수미술의 발전을 진작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미술관이다. 과천 미술관 개관 20주년인 2006년부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³²⁾으로 전환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모든 사업을 고객 중심,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고객만족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술관이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지향성을 강화하려 때 미술기록이나 각종 정보를 통합 서비스하는 일은 더 없이 좋은 기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살핀 국립현대미술관의 현황이 지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적이고 과학적인 미술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급문화로만 여겨졌던 미술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술계 내부에서 시작된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는 이제 문헌정보학·기록학계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기록학이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되는 지금, 미술기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데 충분한 학문적 기반이 다져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미술계 전반의 인식 부재로 인해 아직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기록 관리는 체계성과 과학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미술기록의

32)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관리 및 보존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내고 열린 미술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국립현대미술관은 비전문적이고 수공업적인 미술기록의 수집, 관리 환경에 머물러 있다.³³⁾

둘째, 미술기록들이 여러 조직에 의해 분산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다. 기록의 가치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극대화된다. 공공기관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있으므로 미술관의 업무에 따라 획득한 모든 기록은 최종적으로 아카이브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기관기록과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작품관련 자료들은 미술관과 한국미술의 역사를 도큐멘테이션하는 하나의 미술기록으로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록 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아카이브 조직이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미술기록은 기록 간의 맥락을 유지하며 관리되어야 하고 이러한 맥락관계를 토대로 서비스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콘텐츠로 재 가공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미술기록의 다양한 활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술기록의 다양한 가치 발현을 위해서는 적합한 과학적 미술기록 관리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보다 폭넓고 심도 깊은 활용을 위해서는 기록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매체로 변환 할 필요가 있다. 핵심미술기록인 작품의 디지털 원본을 중심으로 한 관리 및 활용은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담보한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전시·판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더불어 미술시장의 판도 또한 달라질 것

33) 김기현, 「아트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p.57

이다. 따라서 핵심 미술기록인 작품의 디지털 원본과 관련 디지털 기록에 대한 장기보존 문제와 관리,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미술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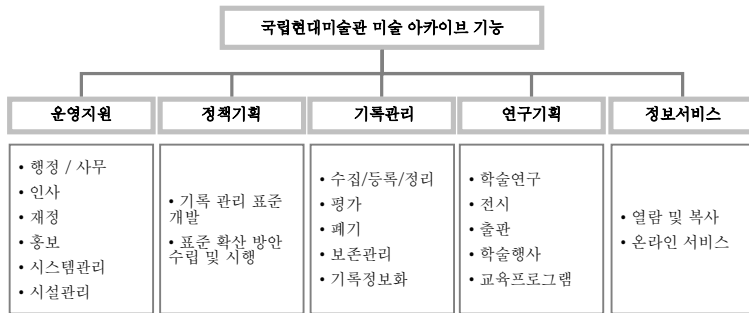
5.1 미술아카이브의 관리 주체 및 기능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은 독립적인 아카이브를 갖지 못한 채 도서관자료실 등의 관련 조직에서 미술기록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 미술관이 소장 중인 미술기록의 맥락을 드러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미술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술 아카이브의 설립 운영은 미술기록의 통합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조치이다. 또한 아카이브의 미술기록 관리가 성공적이라면 기능별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기능 별 업무와 그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기록 관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아카이브의 기능은 크게 운영, 관리, 연구,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의 조직은 앞의 네 가지의 대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립미술관이라는 위상과 규모, 책무를 반영하여 미술기록관리에 대한

34) Tomas Wilsted, William Ntote, "Managing Archival and Manuscript Repositories", {이소연 역, 『기록관경영』, 진리탐구, 2004}

표준 매뉴얼과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미술아카이브 기능별 업무 구성(안)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술아카이브는 크게 5개의 대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운영지원 기능에서는 아카이브의 전반의 행정을 담당한다. 정책기획 기능에서는 미술기록관리 표준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을 촉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모(母)기관으로 둔으로서 갖게 된 기능으로서 국공립·사립 미술관의 미술기록의 표준화된 관리를 도모하여 전 국가적인 미술기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미술기록이 아카이브에 입수된 이후의 관리는 기록 관리 기능에 의해 수행된다. 여기에는 수집·등록·정리, 평가, 폐기, 보존관리, 정보화에 대한 전 과정이 포함된다. 연구기획 기능에서는 아카이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연구 및 전시, 미술사 편찬사업과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가 진행된다. 참조서비스 기능에서는 기록의 열람제공 및 온라인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관리를 책임진다.

아카이브는 위의 기능을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인력구성에 있어서는 아키비스트, 학예연구사, 보존전문가, 전산전문가, 영상제작요원 또는 행정요원을 상주인력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홍보전문가나 전시기획자 등을 임용할 수 있다.

5.2 미술아카이브의 관리 객체

1) 미술기록의 정의 및 유형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의 관리 객체는 미술관 내의 조직에서 생산되는 기관기록과 우리나라 미술사를 도큐멘테이션하는 미술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기록은 증거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으로 해당 기록을 생산한 부서의 업무활동을 반영하는, 행정적 성격의 기록이다. 기관기록은 모기관인 미술관이라는 단일출처를 갖게 되며 법률 상 생산이 의무화된 기록도 여기에 포함된다.

매뉴스크립트의 유형에 속하는 ‘미술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생산한 것으로서 정보·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 또는 미술작품이 생산, 활용, 연구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입수되는 작품보존관리실의 자료나 홍보마케팅팀에서 관리 중인 미술기사철, 학예연구실 내 전시기획운영팀이 수집한 작가관련 자료나 기획전시 전시팸플릿, 도록 및 포스터 등은 미술작품의 배경정보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매뉴스크립트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미술관의

각종 수집, 전시활동을 통해 입수된 기록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정보를 기재하고, 기관기록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면서 맥락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장 기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술기록 또한 미술기록의 유형에 포함된다. 구술기록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당시를 살았던 예술가의 생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³⁵⁾ 이상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에서 관리해야 할 미술기록은 <표 11>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표 11>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관리 객체

유형	종류	출처		매체
기관 기록	행정문서	미술관 내 처리과		비전자, 전자
	자료, 작품슬라이드 및 전자파일	작품보존관리실	미술관 내부	비전자, 전자
미술기사철	홍보마케팅팀	비전자, 전자		
미술관 내 기획전시 전시팸플릿, 도록 및 포스터,	전시기획운영팀	비전자, 전자		
미술 기록	전시팸플릿, 도록 및 포스터, 각종 미술관련 시청각물	국내외 공사립미술관	미술관 외부	비전자, 전자
	미술인 기록	국내외 미술관련 인사 및 잠재적 기증자		비전자, 전자
	구술기록			음성파일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각종 미술기록			비전자,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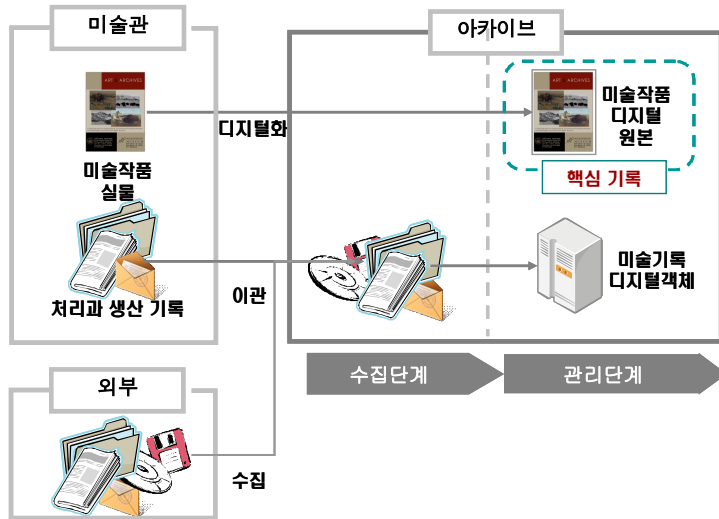
위의 모든 기록을 수집할 때에는 매체를 불문하되, 실물을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를 디지털로 변환한 객체를 기증받거나 양도받아 최종 관리 및 활용은 디지털 기록을 중심

35) 이호신 외,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방안 연구」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p.76.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립현대미술관 핵심 미술 기록

전체 기록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미술작품은 그 자체로 미술기록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양한 미술기록이 생산된 배경과 목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에는 미술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미술사를 정초하기 위해서는 미술기록의 중심에 미술작품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술작품을 핵심 기록으로 설정하고 그 작품의 맥락·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아카이브에서의 미술기록관리의 기본 체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환경이 도래하면서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기록이 등장하였다.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은 온라인에서 보다 확실한 활용도를 보여주며 물리적 공간에서 미술작품이 재현해온 아우라를 구현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아카이브에서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을 핵심기록으로 하여 주변 기록 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 12>는 미술관과 외부에서 아카이브로 입수되는 기록의 관리에 관한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12>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기록관리 체계구조화(안)

본래 기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의 요구에 기반하여 기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있다.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맞춰 미술기록 또한 디지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수집되어 있던 비전자 형태의 기록들을 디지털화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핵심기록인 디지털 원본을 중심으로 미술관이 수집하는 다양한 미술기록을 관리한다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가능하다.

5.3 미술아카이브의 관리 방법

1) 수집

미술관 내 처리과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은 아카이브로 입수된다. 여기에는 행정기록 뿐만 아니라 작품보존관리실의 자료와 슬라이드 및 전자 파일, 미술기사 스크랩, 미술관 내 기획 전시 포스터, 도록 등의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기록은 매 1년 단위로 아카이브로 입수된다. 미술기록의 경우 이를 소장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장기록의 분석을 통해 필요한 기록을 전략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술사를 도큐멘테이션 하는 기록의 범위와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주제, 사안, 지역 내에서 반드시 수집되어야 할 미술기록의 유형, 수집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수집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³⁶⁾ 특히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기록의 수집을 우선적으로 고려되, 추후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수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컬렉션 분석 방법론이 사용된다. 컬렉션 분석은 수집의 우선순위를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1차적으로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의 주제, 지리적, 시간적 범위, 양, 유형 등을 평가한다.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한다. 질적 평가를 통해서 특정 수집 영역에서의 수집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처럼 두 단계를 걸친 컬렉션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수집해야 할 자료의 주요 범위의 설정과 전략적 수집 방법의 설계가 이

36)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관련 사료관 건립과 운영방안 연구』, 2008, p.92

워진다.³⁷⁾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임무 중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학예연구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미술기록의 수집과 체계적인 현대미술사 도큐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아카이브에 의해 전담되어야 한다. 물론 미술기록의 수집 정책 수립 시에는 학예연구실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기증자, 판매자 또는 작가에게 해당 작품과 관련 있는 미술기록의 기증이나 위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미술작품과 더불어 그 맥락을 나타내는 기록이 함께 수집된다면 별도의 기록수집 활동 없이도 미술작품에 대한 더 큰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보다 양질의 기록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기록의 수집 자체가 미술사의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수집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미술기록 수집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내부 연구자와 미술계의 학자, 기록전문가들로 구성하되, 변화하는 미술계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개최, 수집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술기록의 발굴을 위해서는 가치 있는 기록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수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집 방법이 바로 ‘현지수집법’이다. 먼저 수집 담당자는 잠재적 수집 대상 기록의 소장자, 내용, 위치에 관한 정보, 즉 ‘리드(Lead)’를 개발해야 한다.³⁸⁾ 리드는 미

37)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강경무,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p.43}

미술관 소장 작품과 기록에 대한 조사,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조사, 작가나 수집가 등 기증자로부터의 정보 수집 등을 종합하여 개발 가능하며 일정한 서식에 의해 관리 카드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한다. 작성된 리드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소장자와 접촉하고 보관권(Custody)이전을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 기증자 방문 및 일정 조율 등의 수집 준비를 수행한다. 수집 준비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각종 문서들, 예를 들어 기증서나 위탁 계약서, 구입 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서 등의 문서를 사전에 구비한다. 특히 추후 컬렉션으로의 활용 시 편의를 고려하여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을 수집 당시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수집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소장자가 기록의 기증이나 위탁, 판매를 모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수집 담당자는 소장자로 하여금 해당 기록의 미술사적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디지털 객체의 보관권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실물 가치를 지닌 기록을 직접적으로 소장하지 못할 지라도 관련 작품이나 미술 기록의 맥락을 보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의 장르 구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미술기록이 증가하면서 수집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 미술기록의 수집 정책과 수집 방법은 앞으로 무엇이, 어떤 사조나 화파, 작품이 중요한 사회현상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를 고려해야하며 변화하는 미술현상에 부응하여 그에 적합한 형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기록의 보유량은 그 위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술관 연보나 운영 방향에 명시되어 있는 ‘미술작품에 관련된

38) 위의 책, pp.78-84.

자료의 수집·활동은 정작 작품 수집에 가려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술기록의 가치 있는 활용을 위해서는 소장기록을 콘텐츠로 가공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관리

수집된 기록은 분기 별로 입수·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 상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분실이나 망실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개 작가나 작품별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덩어리 상태로 준비서고에 입수된 기록은 분기별로 참조코드를 부여받고 관리 시점에 돌입한다. 소장기록의 참조코드는 유형별로 부여하되 입수 연도, 입수 시점(분기), 컬렉션 번호, 시리즈 번호순으로 숫자를 명기하도록 해야한다. MA(아카이브, Moca Archives), MOP(사진 기록, Moca Photography), MAR(미술인 기록, Moca Artists), MOV(구술기록, Moca Voice)의 코드가 유형별로 부여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자 기록에는 비전자 기록의 참조코드 숫자 앞에 대문자 ‘E’를 기입하여 전자와 비전자 여부를 식별한다. 다만, 미술작품의 경우 미술관 입수 시점부터 참조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디지털 객체의 생성 시 기존의 참조코드를 활용하여 전자 여부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강승희의 작품 ‘새벽 5시 30분 - 1990년 여름’에 대한 디지털 원본의 참조코드는 작품 실물의 참조코드 DP-04038에 ‘E’를 삽입한 DP-E04038이 될 것이다. 그 외의 미술기록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입수 시 부여받은 참조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Classification)는 기록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설계된 체계와 절차에 따라 기록을 적합한 범주에

배치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분류체계를 통해 기록 간의 공통된 성격과 파일 구조, 같은 출처에서 나온 기록 컬렉션의 확인, 컬렉션 간의 관련성이나 생산자와의 관련성 확인 등이 가능하다.³⁹⁾

컬렉션을 조직화하는 작업은 기록의 정리를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관에서 관리와 활용을 위해 수집된 기록을 가장 큰 덩어리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컬렉션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컬렉션의 정의와 경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⁴⁰⁾ 기록의 맥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록관리 방법론인 출처주의에 주목해야한다. 미술 기록이 개인이나 단체, 조직 등이 생산한 미술에 관련된 기록이라 한다면 미술기록 컬렉션을 구조화 할 때는 기본분류를 ‘생산출처’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본분류에 추가하여 2차로 유형별 / 주제별 분류를 적용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기록은 분산되어 관리 중이기 때문에 수집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기술 방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을 계층적으로 조직화하고 표준화된 원칙에 따라 기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류된 미술기록을 기술할 때는 집합적 기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ISAD(G)를 준용하되, 미술기록에 특성을 반영한 기술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의 경우 궁극적으로 모든 기록을 기록건(Item)계층까지 분류·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풍(Fonds)계층에서는 기술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록의 가치가

39) Fredric. M. Miller,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조경구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p.89}

4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사료분류 및 분류트리 개발에 관한 연구」, 2002, p.157

높은 것부터 기록건(Item)계층까지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매뉴스크립트로서의 성격이 강한 미술기록에 하나의 일관된 기술방식을 적용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기술표준을 만들고 이를 준용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별 영역, 배경영역, 이용·열람영역, 연관자료 영역, 기술통제영역을 기본영역으로 설정한 미술기록의 기술요소는 <표 12>와 같이 제안 가능하다.

<표 12>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기록 기술요소(안)

기술영역	기술요소	세부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 아카이브 입수 시 부여받은 코드
	표제	- 아카이브 입수 시 부여받은 이름
	날짜	- 생산일자 - 입수일자
	기술레벨	- 기록이 위치한 계층
	기술단위의 규모	- 기록의 물리적 단위
	기술단위의 매체	- 기록의 매체
배경영역	수집처	- 생산자 및 생산기관 - 소장자 및 소장기관
	관리 이력	- 소장 이력 - 수집 경위
	활용 이력	- 전시 이력 - 대여 이력
	보존 정보	- 물리적 상태 - 보수 이력
	정리 체계	- 지적 정리 체계 - 물리적 정리 체계
	위치	-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서고 상의 위치
열람·이용조건 영역	접근조건	-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 조건
	저작권 이용 조건	- 저작 재산권 / 인격권 / 인접권 이용 여부

	검색도구	- 해당 기록에 접근 가능한 도구
	언어	- 해당 기록을 기술한 언어
연관자료영역	관련 미술 작품	- 관련 작품의 작품코드 기재
	관련 기록	- 관련된 기록에 대한 정보 기재
	사본(디지털 객체) 정보	- 사본의 존재여부 - 사본의 표제[참조코드] - 사본의 위치 정보
기술통제 영역	아카이비스트 정보	- 최초 기술자 - 수정자
	기술일자	- 최초 기술일 - 수정일

미술기록 중에서도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과 미술기록의 디지털 객체에 대한 기술을 수행할 때에는 미술작품으로서의 특성과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린 기술요소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술 작품의 디지털 원본이 기록으로서 아카이브에서 관리 되지만 작품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해 낸 또 하나의 원본으로서 작품의 특징 또한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서비스

아카이브의 서비스는 기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미술기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론적, 실천적, 기술적 측면을 두루 포함한 서비스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보통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은 열람, 편찬,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교육으로 대표된다. 수집단계에서 조성된 풍성한 미술기록들과, 분류와 정리를 통해 유기적으로 구조화된 미술기록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모두 만

족할만한 콘텐츠로 가공될 수 있다. 또한 가공된 콘텐츠는 이
용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리적으로도 도심에 근접하지 못한 한계
를 갖고 있어 현대 도시 미술관의 접근성 확보라는 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다.⁴¹⁾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 내실 있고 이색
적인 서비스는 미술관의 복합적인 문화기관으로서의 변모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는
앞으로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하는 문
화적 공간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아카이브는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한 기록을 기획하여 전시함으로써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미술기록의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람객을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유형 중 하나이다. 작품과 연계한 전시활동
이외에도 하나의 주제에 의한 전시, 미술사의 흐름을 보여주
는 전시, 특정 작가에 대한 전시, 분야 별 전시 등 다양한 상
설·기획·특별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콘텐츠 개
발과 기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프라인의 열람공간에서는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미술 자원들이 통합되어 서비스되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한 자

41) 강승원, 「미술관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미술계의 향방」, 『일주학술
문화재단 심포지움자료집-Back to the Basic 한국미술 어디로 가고있나』,
2008, p.10

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⁴²⁾

또한 아카이브 내에 각종 미술기록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나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연구자들을 위한 심포지움을 진행함으로써 이용자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다. 동시에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미술관의 전시나 아카이브의 강좌, 특강에 관련한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아카이브에 대한 신뢰와 지지기반을 쌓아가는 활동 역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모마와 테이트갤러리 아카이브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도서관자료실, 작품보존관리실, 학예연구실에서 별도로 관리 중인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여 미술 기록을 위한 별도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하여 이용자들은 미술작품과 관련된 기록을 스스로 검색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 나름의 지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기록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함으로써 추후 미술기록과 미술작품 컬렉션에 대한 지식의 백과사전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로 가공된 각종 기록 컬렉션은 다양한 전시와 출판, 교육프로그램으로 응용될 수 있다. 모마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타 미술관과의 디지털 기록의 교환을 통해 소장 작품의 맥락정보를 탄탄히 구성한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 할 수 있다. 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E-Book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미술교과과정을 염두에 두

42)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자원센터 운영방안 설계 및 네트워크 구축 최종보고서』, 2008, p.168

고 제작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들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서비스 형태도 개발 가능하다.

미술기록과 작품을 화면에 구현하고 이에 대한 미술사적 설명을 음성 파일로 지원하거나 3D로 작품을 화면에 구현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작품의 아우라를 좀 더 심도 깊게 관찰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아카이브가 관리하게 될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은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테이트 갤러리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국립현대미술관도 소장 작품에 대한 디지털 원본을 고화질로 제작하여 갤러리나 사립 미술관이 도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미술관이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미술작품의 아우라는 보존하되, 다양한 형태의 재화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⁴³⁾

6. 맺음말

문화자원 아카이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는 현상에 발맞추어 기록학 분야에서 이 영역의 기록관리 방법에 대한 탐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최근 진행된 문화재 아카이빙의 방법에 대한 프로젝트나 국립국악원 자료의 분류와 메타데이터 설계 프로젝트는 이러한 동향

43) 물론 미술작품을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현재 소장 작품의 작가나 소장자와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 2008년 현재 전체 작품의 약 20%의 저작권을 양도 받을 수 있었다.

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⁴⁴⁾ 이 연구는 새로운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친착은 여러모로 문화자원 아카이빙에 대해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풍부한 해외의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기록 수집 관리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 수준에서 이론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빙과 관련된 현실을 크게 어렵지 않게 개선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첫 출발로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수준이었다. 미술계나 미술자료 관리 영역에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미술기록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개념 정리를 전제로 그 포괄 범위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미술기록을 수집, 관리, 서비스하는 미술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개관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미술 아카이브를, 미술 작품을 포함하여 창작 과정에서 산출된 기록, 미술관 등의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산출된 기록, 그리고 작품 해석과 비평을 위한 연구관련 기록들을,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그려 내는 것이 가능하였다.

미국의 모마와 영국의 테이트 아카이브는 선진사례로 분석하기에 적절할 만큼 역사와 내실을 지니는 곳이다. 이들은 미

44) 문화재청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는 오성환,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년 2월; 국립국악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김익한, 이미영, 정은진, 엄경은, 「전통예술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악원, 2008년 12월.

술기록의 범주에 해당하는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이 관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기록관리의 전문적인 방법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체계를 신속하게 구비하여 이를 토대로 미술기록과 각종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아카이브의 설립 운영, 과학적 관리, 온라인 통합 서비스체계의 구축 등이 우리의 미술 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해 선결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자원과 관련된 타 분야에 비해서는 다수의 기록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어 부분적인 혁신만으로도 아카이브로의 발전이 충분히 전망되는 기관이다. 현황분석의 결과 관리 대상 기록이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관련 수집 기록, 작가 관련 부분 등이 결락이 많은 상황이었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본적인 수준에서 미술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집 프로그램이나 분류체계, 기술요소 구성 등의 면에서 전문성을 결하고 있었고, 서비스의 면에서도 자원 통합 서비스의 차원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미술 아카이브의 운영과 객체 관리의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적인 미술 아카이브의 운영, 핵심 미술기록을 포괄하는 관리객체의 충실화, 기록학적 방법론을 염두에 둔 관리 방식의 과학화, 온라인 통합 서비스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기본에 충실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얼마든지 한국 최초로 공공성을 지니는 미술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행에 있다. 2008년 11월 ‘유럽판 구글 문 열자마자 다운, 수년간 준비한 유로피아나, 접속 폭주해 폐쇄’⁴⁵⁾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유로피아나(Europeana)는 EU가 수년간 준비해온 유럽 문화 콘텐츠 검색사이트로 오픈하자마자 네티즌의 접속 폭주를 감당해내지 못해 하루만에 사이트를 일시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테의 신곡 등 고전 문학작품, 영국 마그나 카르타류의 역사문화자원, 베토벤 등 음악가의 친필 악보와 기타 관련자원들, 그리고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등 회화 작품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있었으니 세계인의 주목을 끈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한 가지 유의할 지점은 유로피아나의 계획과 집행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유럽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문화자원들을 재구성하고 체계적으로 도큐멘테이션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유로피아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속으로 미술 아카이브를 경영하는 일은 한국판 유로피아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첫 출발이다. 물론 방법론적 안정과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그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의의이다. EU가 유로피아나를 구축해나갔듯이 미술 아카이브가 구상과 방법론적 구안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행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본다.

45) 조선일보, 「‘유럽판 구글’ 문 열자마자 다운, 수년간 준비한 유로피아나, 접속 폭주해 폐쇄」, 2008.11.22

ABSTRACT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of Art Archives

Jeong, Hye-Rin·Kim, Ik-Han

Museums are producing new value and being redefined as places that reproduce context, as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re being reflected in museum activities. The new additional functions and roles to the traditional mission of museums allow artworks to find potential functions of art archive and museum.

At the same time, the public has faced originality and aura of an artwork by viewing the physical subject. However, with the appearance of a new digital object, the initiative of viewing has moved over from the artwork to the hands of the public. Now, the public does not go to the museum to see an artwork, but has started to adopt to an opposite paradigm of bringing the artwork forward to the screen. Therefore, they are not satisfied any longer with just seeing an artwork, but dema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works and reproduce it as knowledg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find type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definition and range selection of art archive at this point where the value of art archive is enhanced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required, and to present record management methods according to art archive structure and core execution function. It especially stressed that the basis of overall art archive definition was in an 'approach' paradigm rather than a 'preservation' paradigm, and embodied various application methods of digitalized art

records. The digital object of an artwork was recognized as the first materialization of an actual artwork, and the digital original of an artwork was presented as the core record. Art archive managed under physical and intellectual control were organically restructured focusing on digital original copies of artworks, which are the core record in a digital technology environment, and could be provided to users in forms of various services that meet their demands. The beginning of systematic management of such art records will become a first step to enhance historical value, establish art cultural identity, and truly possess art culture.

Key words : Records of Art Archives, Art Archives, MoMA · Tate Archives, Integrated Services of Cultural Properties, Digital Object of Art archives